



서울인쇄센터 2010동경국제도서전 참가

재단법인 서울인쇄센터(이사장 조정석)는 지난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된 제17회 동경국제도서전에 5개 회원사가 참가하여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벌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조정석 서울인쇄센터 이사장은 한국인쇄의 활로는 인쇄물 수출증대에 있다며 열악한 수출환경에서도 열심히 해외시장을 개척하고자 노력한 참가사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번 동경국제도서전에는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장을 비롯, 조정석 서

울인쇄센터 이사장, 이충원 인쇄연합회장, 최창근 전 인쇄연합회장이 현지에 동행하여 참가업체들이 기대한 실적을 낼 수 있기를 기원하고 격려했다.

서울인쇄센터는 서울시로부터 부스임대 및 통역서비스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동경도서전 참가단을 파견했으며 참가회원사들은 청아문화사(대표 김남수), 한영문화사(대표 홍사룡), 씨마스커뮤니케이션(대표 이미래), 해인기획(대표 유명식), 비스타미디어(대표 염인환) 등 5개사였다. 청



◀ 동경국제도서전참가단 기념촬영
 ▼ 동경국제도서전내의 한국관 모습
 ▼ 청아문화사 김남수 대표가 해외 바이어와 인쇄물 수출상담을 하고 있다.



아문화사 김남수 대표는 “10년 이상 인쇄물 해외수출에 매진하여 왔지만 이번과 같이 인쇄단체장들이 현지까지 동행하여 격려와 현지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주기는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3회 연속으로 동경국제도서전에 참가하고 있는 서울인쇄센터는 세계인쇄시장에서 진출이 가장 어려운 일본에 한국인쇄의 우수성을 소개하여 일본 출판 및 인쇄사의 관심을 증대시켜왔으며 참가가 거듭됨에 따라 참가사의 수출상담액과 실적이 상승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인쇄센터는 이번 도서전 참가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4개의 부스를 임차하고 전시장내 설치물의 인테리어를 지원했으며 담당직원 1명을 배치하고 현지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공동부스 인테리어 기획 및 설치, 전시물품의 수령 및 운반을 지원했다. 이번 2010동경국제도서전에 참가한 서울인쇄센터의 참관단은 총 6개 업체, 12명이었다.

지난 7월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동경국제도서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개 국, 1000개 사가 참여했으며 참관객도 8만7449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전시회 사무국은 밝혔다. 동경국제북페어실행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전시회는 사



노 신이치 작가의 ‘구텐베르크 시대는 끝났는가’를 기조연설로 공식일정을 시작했으며 특별강연과 세미나가 편집자, 출판사 관계자, 저작권 업무 관계자등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전시회 기간동안 온-디멘드와 소량 인쇄를 원하는 출판사와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온디멘드 인쇄서비스를 하는 POD인쇄존을 비롯하여 출판, 물류, 유통 솔루션 존 등이 개설되어 참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한편 이번 도서전 기간 동안 교육IT 엑스포와 디지털 퍼블릭 페어가 함께 열렸다. 디지털 퍼블릭 페어에서는 서적, 코믹스, 잡지, 학술정보 등을 디지털화하고 서비스하는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